

2022 서울시 건축 문화 활성화 사업 젊은 건축가 공모전

# 사회적 건축: 열린 정치 공간

## 공모기간

2022년 7월 7일~9월 25일

## 접수기간

2022년 9월 19일~9월 25일 6PM

## 접수방법

홈페이지 가입 후 접수

[www.spacecoordinator.com](http://www.spacecoordinator.com)

(영상은 다운로드 가능한 링크로 제출)

## 제출물

·동영상 (5분 이내, FHD, MP4, 16:9)

·졸업(예정)증명서

## 참가자격

·건축관련학과 학위 취득 후 15년 이내인 자

(졸업예정자 포함)

·단체 지원 가능 (구성원 모두 참가 자격 충족, 최대 3인)

\*전년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 참여 불가

(입선 가능)

## 작품 심사

2022년 9월 28일 (수)

## 수상작 발표

2022년 9월 30일 (금)

## 시상식

2022년 10~11월중

## 시상

대상 1인(팀) 1,000만원 /

최우수상 1인(팀) 300만원 /

우수상 2인(팀) 100만원 /

입선 3팀 내외

·수상자 전원 서울시장상 수여 및

온, 오프라인 전시 개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

인터뷰 촬영 및 유튜브 업로드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추후 변동 가능

2022. 7. 7. — 9. 25.

I·SEOUL·U



생각의  
공간

2022년  
건축가  
공모전

2022 서울시 건축 문화 활성화 사업  
젊은 건축가 공모전

# 사회적 건축: 열린 정치 공간

## 공모기간

2022년 7월 7일~9월 25일

## 접수기간

2022년 9월 19일~9월 25일 6PM

## 접수방법

홈페이지 가입 후 접수

[www.spacecoordinator.com](http://www.spacecoordinator.com)

(영상은 다운로드 가능한 링크로 제출)

## 제출물

·동영상 (5분 이내, FHD, MP4, 16:9)

·졸업(예정)증명서

## 참가자격

·건축관련학과 학위 취득 후 15년 이내인 자 (졸업예정자 포함)

·단체 지원 가능 (구성원 모두 참가 자격 충족, 최대 3인)

\*전년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 참여 불가 (입선 가능)

## 심사 및 시상

작품 심사: 2022년 9월 28일 (수)

수상작 발표: 2022년 9월 30일 (금)

시상식: 2022년 10~11월중

## 시상

·대상 1인(팀) 1,000만원 / 최우수상 1인(팀) 300만원 /

우수상 2인(팀) 100만원 / 입선 3팀 내외

·수상자 전원 서울시장상 수여 및 온, 오프라인 전시 개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 인터뷰 촬영 및 유튜브 업로드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추후 변동 가능

## 문의

[www.spacecoordinator.com](http://www.spacecoordinator.com)

[spacecoordinator.projects@gmail.com](mailto:spacecoordinator.projects@gmail.com)

## 발제문

**장윤규** 국민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운생동 건축사사무소 대표

지금 한국 사회는 세종 국회의사당, 용산시대를 연 청와대 등 정치적인 이슈의 장소가 그 논란에 중심에 서있다. 이러한 새로운 장소는 단순히 정치적인 공간이 아니라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고 새로운 열린사회와 공감하는 의미있는 장소로 탈바꿈되어야 한다. 건축 공간이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 과거의 닫힌정치를 열린정치로 바꾸는 새로운 제안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여기에 젊은 건축가들의 자유로운 상상력이 개입된다면 도시와 사회를 바꾸는 새로운 건축적 장치를 기대할 수 있다. 정치적 공간을 통한 사회적 상상력의 가치는 건축 자체의 구조를 만드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의 문화적 인프라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연결된다. 우리는 이 공모전을 통해서 장소, 프로그램, 공간적 가치 등 경계없는 다양한 접근과 상상력으로 무장한 흥미로운 제안을 기대한다.

**양성구** 에테르쉽 대표

바야흐로 정치의 공간이 움직이는 여름이다. 때에 맞춰 찾아오는 시기이지만, 이전과는 다른 큰 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는 예측들은 건축가들에게는 그냥 흘러들기엔 창작욕구가 가만있지 않는다. 현상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하나의 중심은 북악산 아래에서 가을 단풍길 주변으로 움직였고, 또하나의 중심도 금강 언저리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수직적이었던 정치의 공간은 수평적으로 또는 바닥에서부터 다차원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닫힌 공간은 더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사회적 건축물들 중에 어쩌면 시민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공간일 수 있는 곳이지만, 역설적으로 건축가들에게 가장 덜 고민되었던 대상지이기도 하다. 어떤 정치가 좋은 것이냐, 어디까지가 정치인가 라는 질문은 주관적일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공간이 시민들에게 그리고 정치를 실천하는 데에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건축가의 시선으로 바라볼 만 할 것이고, 그러한 담론의 과정과 결과가 유쾌했으면 한다. 일상의 길위에서 작지만 위트있는 개입에서부터, 도시규모의 먼미래까지 바라보는 비전일수도 있다. 그 상상에 제한은 없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기반하기만 하면 된다. 열린 정치의 공간에 대한 젊은 건축가들의 진지하면서도 유쾌하고 발칙한 도발을 기대해본다.